

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·사업재편 요건 완화,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한다

- 신(新)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시행

산업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, 요건 완화,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(이하 ‘기업활력법’) 및 시행령」이 7.17(수)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‘공급망 안정’ 유형을 신설하여 현행 5개 유형*에서 6개로 사업재편 유형이 확대된다.

* 사업재편 유형 : 과잉공급해소, 산업위기지역, 신산업진출, 디지털전환, 탄소중립

②과잉공급해소,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「상법」, 「공정거래법」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을 단축한다.

③시설·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. ④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 지원센터가 신설되고, ⑤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‘동반성장 평가·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’ 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.

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,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.

산업부 관계자는 “고금리 지속,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,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개정법령 시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기업은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(02-6050-3161~3)에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
담당 부서	산업정책관	책임자	팀 장	김태형 (044-203-4230)
	기업정책팀	담당자	사무관	박석용 (044-203-4232)

참고 1

「기업활력법 및 시행령 개정안」 주요 내용

□ 기업활력법 : 적용기한, 대상, 범위, 지원체계 대폭 보강

- (기한) 한시법('24.8월 일몰 예정) → 상시법 전환
- (유형) 6개 유형 (△과잉공급 해소, △산업위기지역 대응, △신산업 진출, △디지털 전환, △탄소중립, △공급망 안정)
- (특례) 모든 사업재편에 확대 적용 (기존 과잉공급·산업위기지역에만 적용)
 - * (상법) 간이합병, 소규모 합병시 절차 간소화 (주주총회 의결 → 이사회 승인)
 - (공정거래법) 자회사·손자회사 지분규제(상장 30%) 등 유예기간 연장 (최대 5년)
- (지원) 산업별·권역별 지원체계 보강
 - 대기업을 협력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시, 동반성장 평가 및 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
 -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(지역상의, 지역은행, 테크노파크 등)를 구축해 수요발굴, 금융·컨설팅·기술지원 등을 밀착 제공

□ 기업활력법 시행령 : 기업활력법 개정사항 구체화 등

- 공급망 안정 범위 등 법 위임사항 구체화
 - 공급망 3법 등과 연계하여, 품목·행위 유형별 규정

구 분	주요 내용
품 목	△공급망 안정품목·핵심전략기술 적용품목(소부장특별법), △핵심자원(자원안보법), △경제안보 품목(공급망기본법), △긴급수급안정화 품목(첨단전략산업법)
행 위	국내생산(설비 신·증설, 유티 등), 유통, 비축, 수입처 다원화, 대체품목 개발

- 지원센터·전문지원기관 지정·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
- 사업재편 제도 운영개선
 - 사업재편 구조변경 요건에 '시설·장비의 감축·폐쇄' 추가
 - 심의위원회에 산업·금융 실무전문가 및 청년인재 참여 확대
 - 유티·샌드박스 기업 등은 사업재편 판정위원회 판정절차 면제

< 자동차부품 >



< 조선기자재 >



< 석유화학 >



< 철 강 >



< 바이오·제약·의료기기 >



< 반도체 >



참고 3

사업재편 제도 주요 성과

◇ 총 484개사를 지원하여, 신규고용 2만명·투자 38조원 성과

☞ 중소·중견, 지역기업 중심으로 사업재편 성과 확산

- (규모) **중소기업 394 (81%), 중견기업 79 (17%), 대기업 11 (2%)**
- (유형) **과잉공급 113 (23%), 신산업 367 (76%), 탄소중립 1 (0.2%), 산업위기지역 3 (1%)**
- (연도) **年평균 약 59개사 승인 (사업재편심의위 개최 : '16.8월 이후 총 43차)**

연도	'16	'17	'18	'19	'20	'21	'22	'23	'24.6
기업수	15	51	34	9	57	108	106	93	11

- (지역) **非수도권 소재 57%** (275개사/484개사)

소재	수도권	전남권	전북권	경남권	경북권	충청권	강원권
기업수	209	24	16	98	76	57	4

- (업종) **자동차부품·조선·기계 업종이 52%** (251개사/484개사)

업종	車부품	기계	조선	전기전자	석유화학	소프트웨어	철강	의료기기
기업수	154	53	44	35	25	30	13	13

* 서비스 19, 반도체 12, 디스플레이 12, 유통·물류 9, 비철금속 9, 섬유 8, 통신방송장비 7 등

